

사설

코로나 재유행... 대비 태세 갖춰야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약 1300명으로, 지난 7월 둘째 주 입원환자인 148명보다 약 9배 늘어났다.

증상은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는 집계되지 않아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름방학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학교 입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개강을 앞둔 시점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돌아봤을 때, 악몽 같았던 코로나가 학내로 퍼지게 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지난 팬데믹 동안 구성원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학습 질 저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만 이뤄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한계를 보였다. 학습권 침해로 이유를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 운영 또한 총체적 난국이었다. 정상적인 입학식과 졸업식, 대동제를 기대할 수 없었다.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학사일정도 수시로 바뀌어 혼란을 더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업이 무산돼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비해 인건비나 각종 비대면 수업 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늘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무너진 학생 자치는 여전히 그 피해가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대면 활동이 줄자 자연스레 학생 자치를 향한 관심은 멀어져 갔다.

학교는 지난 팬데믹 기간의 위기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성원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시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보건 수칙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는 지난 유행보다 대비가 잘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난 팬데믹 급의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코로나는 코로나다. 지난 3년간 힘든 기억을 쫓던 질병을 대비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팬데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전면에 마주하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위기를 버텼던 우리의 경험이 앞으로 예상되는 코로나의 큰 파도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와이파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쪽이 와이파이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불안정하고 느린 학내 와이파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와이파이는 '공식 금쪽이'의 대명사가 됐다.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넉넉지 않은 데이터양에도 테더링을 켜 노트북에 자료를 내려받는다.

현재 각 단과대 건물마다 숨어 있는 금쪽이들은 와이파이 버전 4다. 이는 2009년형 모델로 고속 인터넷이나 스트리밍에 적합하다. 코로나 이전의 모바일 기기 수요를 생각해 보면 지금 숨어있는 와이파이 버전 4를 사용했어도 충분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수업 환경이 변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열람실에서 온라인강의와 유튜브를 시청한다. 강의실, 열람실, 라운지 등에서 무선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다중 사

용을 감당할 와이파이 버전 6으로의 교체도 이뤄지고 있다. 와이파이 버전 6은 2019년형으로 낮은 지연 시간이 장점이며 최신 기술이 적용돼 차세대 인터넷 등에 사용된다.

학교도 시간이 흐르며 와이파이 버전 6을 학교 곳곳에 설치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이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기 위해선 큰 비용이 든다. 그레도 원인과 대안을 파악한 지금, 정보처는 순차적인 와이파이 버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총학도 학생들의 불평을 흘려듣지 않았다. 개강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보처와 학생 사이를 연결했다. 와이파이 불편 사항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정보처와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정보처의 현장점검이 이뤄졌고, 점검 내용을 토대로 무선랜 공사 계획이 이뤄졌다. 교내 구성원들이 금쪽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 손을 모으는 가운데, 학생 사회와 학교의 협력으로 금쪽이에서 벗어날 교내 와이파이의 연젠가를 꿈꿔본다.

“

교내 환경에 맞는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고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게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양여진

만평 교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와이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자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세시봉

메뚜기 신세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92만 명을 웃돌며 1년 새 24% 급증했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이 4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계속되는 최저 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은 노동 시간을 쪼개 알바를 고용한다. 이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쪼개진 알바 자리를 찾는 것에 급급하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주휴수당의 영향이 크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다.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주는 셈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줄이려고 주 30시간 일하는 직원 대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2명을 채용한다.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다.

불 난 집에 부채질하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계속되는 물가 급등 기조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 모두를 올리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청년들은 '메뚜기 신세'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쪼개기 고용을 성행하게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청년들은 쪼개진 알바 시간을 따라 이곳저곳 뛰어다닌다. 기술을 배우고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한다. 불투명한 고용 연속성은 청년들의 숨을 더욱 가쁘게 한다.

더불어 쪼개기 고용은 노동 보호 사각지대를 넓힌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연차휴가, 퇴직금, 건강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고용을 늘리고 그 피해를 청년들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 도입됐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청년들의 안정된 알바 자리를 빼앗는 역설을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